번역학연구, 26(3), 73-111 (2025년 9월 30일)
https://doi.org/10.15749/jts.2025.26.3.003

문체 번역 가능성 연구: 『채식주의자』 한·중 독자 서평의 NLP 비교·분석

백선(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문학번역에서는 언어적인 의미만을 옮기는 것으로 원작품의 독자가 읽으며 파악했을 내용과 문학적 감동을 목표어권 독자에게 동일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표로 명확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는 실용 텍스트와 달리, 문학작품에서 작가는 의미의 구축을 위해 보다 치밀하고 정제된 언어 형식을 선택하며, 이런 문체와 그 효과가 텍스트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박혜주 등, 2007, pp. 9-10). 따라서 번역가는 단순히 줄거리만을 옮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가 고유의 표현 방식과 미학적인 전략까지도 목표어로 재창조함으로써 원문의 언어 형식이 수행하던 기능을 재현하여 '문체의 등가성'을 달성해야 한다. 이는 목표어권 독자들이 번역문학 텍스트를 하나의 독립된 문화예술 작품으로 수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채식주의자』의 중역(中譯)을 맡은 후쟈오퉁(胡椒筒) 번역가는 번역 과정에서 "의역보다는 작가가 추구하는 문체를 더 중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부용, 2024, p. 64). 실제 분석에서도 그의 중역본은 원작의 어순까지 그대로 모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 독자 서평에서는 "(원

www.kci.go.kr

작)언어가 아름답지 않다”, “(원작)필력이 부족하다”, “번역 때문인지 많은 묘사들이 조급하고 얕게 느껴진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4.1 & 4.2 참고). 이러한 평가는 개별 독자의 단편적 인상이 아니라 다수의 서평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비판적 담론이며, 한국 독자들이 동일 작품에 대해 “문체가 섬세하다”, “묘사가 뛰어나다” 등 높이 평가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작품이 번역을 통해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 독자들의 이러한 서평은 원작 자체보다는 번역본의 문체적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국내 독자들로부터 문체적 완성도를 인정받은 작품이 중국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은 번역가가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원문을 ‘충실히(원작 그대로 모사)’ 옮기는 것만으로는 ‘문체의 등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사례로 한국 독자와 중국 독자의 수용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번역이 원작의 문체와 미학적 재현에 얼마나 기여하거나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 및 해당 서평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해당 작품이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에 이어 작가 한강 역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단의 주목을 받았으나 중역본은 서평에서 드러나듯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수용 양상은 문학 번역 핵심 과제인 문체 재현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중국에서의 미온적인 반응은 번역상의 문체적 한계뿐 아니라 원작의 서사 구조, 문화적 코드, 이데올로기적 거리감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사전에 실시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중역본에 대한 서평에서 ‘언어’와 ‘문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복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서사나 주제 등 요인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외생변수를 배제하지 않되 문체 재현이 수용 양상에 미친 영향에 보다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전개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파이썬(Python)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긍·부정 정서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과 대규모 문헌 집단에서 잠재적 주제 구조를 추출하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한중 양국 독자 서평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독자

www.kci.go.kr

들이 해당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는지를 분석하고, 번역이 이러한 수용 양상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실제 번역 예문도 분석하였다. 특히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에서 드러난 문체와 관련된 정서적 반응 및 해석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체의 번역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1)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한중 양국 독자들은 어떠한 감성적 반응과 해석을 보였는가?

(2) 이와 같은 수용 양상은 번역의 어떤 요소, 특히 문체적 특징의 변형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본고는 위의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서론을 시작으로 본론에서 문체 번역의 가능성과 독자 수용 중심의 문학번역 연구 및 디지털 인문학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어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독자 반응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한 후,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체 재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한국 문학 번역 및 중국 수용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체 번역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문체는 작가가 텍스트를 구성하고 의미를 구현하는 고유한 방식으로 어휘 선택, 문장 구조, 어조와 같은 언어적 자원의 활용을 통해 형성되는 표현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Literary Devices, 2013). 리치와 쇼트(Leech & Short, 2007, p. 31)는 문체를 “특정 작가가 특정 장르나 특정 텍스트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배치함으로써 실현되는 파롤(parole)”로 규정하며, 텍스트의 문학적 가치와 독창성은 이러한 문체적 선택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베이커

www.kci.go.kr

(Baker, 2000, p. 245) 역시 문체를 작가가 의도한 바를 텍스트로 표출하는 고유한 '지문(thumb-print)'에 비유하며, "글쓴이에 따라 선호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적 행위 패턴"으로 정의했다. 요컨대 문학작품의 핵심 요소인 문체는 작가의 고유한 글쓰기 방식으로 동일한 주제라도 문체적 특성에 따라 결과물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문체의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이러한 미학적 고유성을 재현하여 번역 결과물 역시 문학작품이 되도록 번역하여야 한다(박혜주 등, 2007, p. 13).

그러나 문학번역에서 문체의 재현은 상당한 난점을 내포한다. 문체는 궁극적으로 작가가 선택한 언어적 자원의 패턴화(patterned choices)로 구현된다. 이러한 언어적 선택은 크게 '언어 사용자'와 '언어 사용 방식' 두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글쓴이의 지리적 출신(geographical origin), 사회적 계층(social class), 시대적 요소(time)를 포함하고, 후자는 매체(medium), 참여양상(participation), 사회적 역할 관계(social role relationship), 사회적 태도(social attitude), 그리고 전문 영역(province)을 포함한다(House, 1981, p. 42). 다시 말해, 문학작품에서의 언어적 선택은 작가의 세계관뿐 아니라 작품이 내포한 문화적·역사적·시대적·이데올로기적 맥락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문학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대응을 넘어 출발 문화를 잘 모르는 독자와 소통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박혜주 등, 2007, p. 13).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적 보충, 번역가의 개입 등 문체 번역을 탐구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어졌다(Čermáková, 2018; Hermans, 1996; May, 1994; Saldanha, 2021).

또한 문학 언어는 일상 언어와 달리 단어의 사전적·일차적 의미를 넘어 맥락적·상징적 의미를 생성하는 특수성을 지닌다. 문학적 맥락에서 어휘는 일상적인 지시 기능을 벗어나 서사와 정서, 심상을 창출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가령 '버드나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어휘들이 반드시 '버드나무'라는 대상을 직접 지칭할 필요는 없으며, 이러한 표현은 주로 상징적이거나 은유적 방식으로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한다. 이처럼 문학작품에서 단어들은 일상적인 대응어로 한정되지 않고 문맥 속에서 새로운 의미, 즉 형태와 의미가 결합된 '시니피앙스'를 획득하여 독자적 미학을 형성한다. 이처럼 원작 작가가 선택한 언어적 표현 방식이 그 내용과

www.kci.go.kr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출발어와 목표어 간의 형태적 대응만으로는 원문의 문학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번역가는 언어와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 고리를 끊고 더 창의적인 언어 활용을 통해 원문과 등가적인 재표현을 통하여 원문과 등가적인 재표현을 추구해야 한다. (박혜주 등, 2007에서 인용됨) 다시 말해, 번역문학의 문체는 목표어권의 문체적 규범과 효과에 상응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문학번역에서 직역과 의역의 선택, 원문과 번역문의 구조·수사적 비교·분석 등 관련 연구들도 이어졌다(Baker, 2000; Newmark, 1988).

그러나 '문체의 등가성' 달성 여부는 수용 주체인 목표어권의 독자가 번역 작품을 읽으며, 원작 독자와 유사한 심미적·정서적 반응을 경험하는지 여부로 평가되어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는 주로 번역가나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번역물이 실제로 독자에게 원작과 유사한 문체적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양국 독자 서평에서 나타난 문체와 관련된 이슈를 바탕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수용자 경험의 층위를 실증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체의 '번역 가능성' 논의를 독자 중심으로 확장하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 다룰 수용이론과 데이터 기반 분석과의 접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2.2 독자 수용 중심 문학번역 연구

수용이론(reception theory)은 전통적 문학 연구의 중심이었던 저자와 텍스트에서 벗어나 문학적 의미 형성의 핵심 주체로 독자를 조명한다. 수용이론의 대표 주자인 야우스(Jauss, 1982, p. 15)는 독자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 '기대지평(horizon of expectation)' 개념을 제시하며, 문학작품의 역사적 연속성은 생산 주체뿐 아니라 소비 주체-즉 작가와 독자 대중 간의 상호작용-를 통해 매개될 때만 비로소 '과정적 성격(character of a process)'을 지닌 역사로 성립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문학은 본질적으로 소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저자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수용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저(Iser, 1987, p. 169) 역시 문학작품을 여백(blanks)과 틈(gaps)을 지닌 열린 구조로 규정하

www.kci.go.kr

고, 이러한 여백은 독자와의 소통을 통해 메워질 때 비로소 작품의 존재와 의미가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수용이론은 문학 텍스트를 독립적 대상이 아닌 독자 경험과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적 실체로 이해한다.

1980~1990년대에 수용이론이 번역학에 도입되면서 번역학의 관심도 기존의 번역 텍스트와 번역가 중심의 접근에서 번역의 수용 주체인 독자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었다(Lv & Ning, 2013, p. 114). 물론 이러한 변화는 스코포스(Skopos) 이론,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등 목표문화 중심의 번역학 연구 흐름과 맞물리면서 이루어졌다. 수용이론의 관점에서 번역가는 일차 독자로서 자신의 '기대지평'에 기반하여 원작의 '여백'과 '틈'을 창의적으로 메우며 텍스트를 재구성한다. 원작이 번역가의 수용을 일부 제한하기에 번역가는 원작과 최대한 가깝게 전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번역가는 번역 텍스트가 목표어권 독자의 '기대지평'과 융합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하며, 전제된 독자(default readers)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번역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전환은 번역가의 역할과 독자의 기대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이바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독자 반응을 직접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독자 수용 중심의 번역 연구가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탐색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령 김순미(2012)는 신 정보기술의 발달로 번역작 독자들이 온라인에 자유롭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경이(2016)는 중국 최대 독서 커뮤니티인 '더우반독서(豆瓣讀書)'에 게시된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중역본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온라인 서평 분석을 통하여 독자 반응을 살피고 한국 문학의 중국 시장 확대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신지선과 조혜진(2018)은 아마존닷컴, 교보문고와 예스24에서 취합한 『채식주의자』 영어판과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 대한 한영 독자 서평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번역 문학작품에 대한 한국과 영미권 독자들의 실제 수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www.kci.go.kr

이러한 연구들은 독자 서평 분석을 통해 문학번역 작품의 수용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번역 수용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한계점 역시 존재한다. 우선, 독자 반응 분석을 번역 전략, 특히 문체 재현과 같은 핵심적 문제와 연결하여 번역학적 논의를 충분히 확장하지는 못했다. 또한 다수의 연구가 연구자의 수작업 분류와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객관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대규모 한·중 독자 서평을 수집하여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 등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수용 양상 비교를 시도하였다. 나아가 이를 실제 번역 텍스트와의 대조 분석으로 확장하여 독자 반응과 문체 재현의 문제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문학번역 연구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2.3 감성분석 및 토픽 모델링 기반 번역 연구

최근 디지털 인문학의 확산과 더불어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 등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방대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대규모 온라인 서평, 소셜 미디어 게시물, 뉴스 기사 등에서 나타나는 언어적·정서적 패턴을 체계적으로 추출·분석함으로써 독자 반응이나 문화적 담론의 양상을 정량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감성분석은 자연언어처리(NLP) 분야에서 텍스트에 내재한 주관적 태도, 감정, 평가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해당 방법은 터니(Turney, 2002)와 팽 등(Pang et al., 2002)이 영화와 제품 리뷰를 대상으로 긍정(positive)과 부정(negative) 분류 실험을 수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감성분석은 소비자 반응 조사나 여론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 왔으며, 최근에는 문학 및 번역학 연구로도 확장되었다. 가령 널리스닉과 베어드(Nalisnick & Baird, 2013)는 셰익스피어 극본과 같은 장문의 문학 텍스트에 감성분석을 적용하여 등장인물 간 '감정 네트워크'를 자동 추출하고, 문학작품 내 인물 관계 분석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홍유림(2020)은 감성 어휘사전을 활용해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 대

www.kci.go.kr

사의 긍·부정을 분석하여 감성분석의 문학작품 분석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지윤주(2022)는 감성 코퍼스를 기반으로 소설 『축복 받은 집(Interpreter of Maladies)』의 원문과 번역문에서 '픽션적 전환(fictional turn)'의 관점으로 통역사 표상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문헌 집단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여 주제를 찾아내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기존의 단어 빈도 분석에서 발생하는 희귀성 문제, 다의성, 유의어, 의미계층구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양연희 등, 2019; Blei, 2012). 이는 맥락과 관련된 단서들을 이용해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군집화하여 주제(topic)를 추론하는 방식으로(양연희 등, 2019), 본 연구의 독자의 관심사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번역학 분야에서도 토픽 모델링을 통해 기계번역과 관련된 연구 주제를 고찰하거나, 동일 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와 원문 범주를 비교·분석하여 인간 번역과 기계번역 간 조화 문제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송은정, 2024; 윤혜경 등, 2023).

이처럼 자연언어처리 기반 접근은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독자의 집단적 반응을 구조화할 수 있어 수용이론을 실증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논의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결합하여 『채식주의자』에 대한 방대한 한중 독자 서평 데이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학번역에서의 문체 재현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일차 분석 대상은 한중 양국 독자 서평으로, 국내 대표 온라인 서점인 예스24의 독서 커뮤니티 '사락(Sarak)'에 게시된 한강의 『채식주의자』 서평 1,054건과 중국 독서 서평 전문 플랫폼 '더우반독서'에 게시된 중역본에 대한 독자 서평 2,057건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1].

이어 서평 분석을 토대로 실제 번역 사례를 고찰하는 과정에서는 『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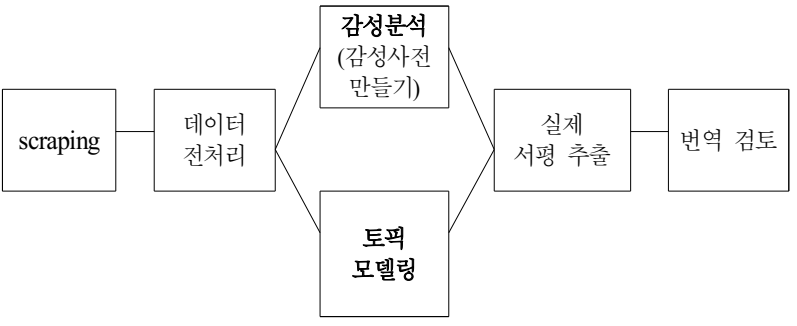
www.kci.go.kr

주의자』의 공식 중역본 중 하나인 후쟈오퉁의 역본을 중심으로 번역 텍스트를 검토하였다. 현재 한강의 『채식주의자』 중역본으로 두 가지 공식 출간본이 존재한다. 하나는 2013년 충칭출판사(重慶出版社)에서 출간된 첸르(千日) 번역가의 번역본이고, 다른 하나는 2021년 중국 사천문예출판사(四川文藝出版社)에서 출간된 후쟈오퉁 번역본이다. 본고는 이 가운데서 후쟈오퉁의 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해당 역본이 '더우반독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서평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출간된 공식 역본으로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자 수용분석의 대표성과 학술적 의의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절차



우선 독자 서평 수집은 파이썬의 웹 스크래핑(scraping) 라이브러리인 레퀘스트(Requests)와 뷰티풀수프4(BeautifulSoup4), 그리고 브라우저 자동화 도구인 셀레니움(Selenium)을 활용하여 '사락'과 '더우반독서' 플랫폼에서 각각

1) 비록 서평 수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 기법은 분석 대상 집단 내부의 상대적 분포와 패턴을 추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서평 수의 절대적 차이가 분석 결과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www.kci.go.kr

한국과 중국 독자 서평을 수집하였다. ‘사락’의 경우 웹사이트 구조가 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셀리니움을 활용하여 서평 데이터를 스크래핑하였고, ‘더우반독서’는 정적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레퀘스트와 뷰티풀수프4만으로도 데이터 수집이 가능했다.

수집된 서평은 언어별로 각각의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전처리하였다. 한국어 서평은 코엔엘파이(KoNLPy), 중국어 서평에는 쟈바(Jieba)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목적에 따라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에 적합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정제하고 구조화하였다.

감성분석의 경우, 독자들이 작품을 통해 경험한 정서적 반응을 최대한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폭력’, ‘억압’, ‘자유’, ‘저항’, ‘강압’, ‘거부’, ‘고집’, ‘해방’, ‘미치다’ 등 독자의 정서적 반응이 아닌 작품 원문에서 직접 인용된 단어는 불용어(stopwords)로 지정하여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어렵다’, ‘난해하다’, ‘쉽지 않다’와 같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 표현들은 동의어 처리(synonym normalization)를 통해 정규화하였다[2]. 중국어 서평 역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감성 점수 산정을 위해 한국어 감성사전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직접 구축하였고, 단어별로 −2에서 +2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였다(예: 섬세하다(+1), 어렵다(-1)). 중국어 감성사전은 대만국립대학교(NTU)의 감성사전(간체버전)과 칭화대학(清華大學)에서 제공한 감성사전을 취합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한국어 감성사전과 동일한 점수 스케일(−2 ~ +2)을 적용하였다(예: 精彩(훌륭하다)(+1), 空洞(얕다)(-1)).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는 감성분석 단계에서 불용어로 처리했던 ‘폭력’, ‘억압’, ‘자유’, ‘저항’, ‘강압’, ‘거부’, ‘고집’, ‘해방’, ‘미치다’ 등의 작품 인용어도 주제 추출에 의미 있는 단어로 간주하여 포함시켰다[3]. 반면 ‘보여줍니

2)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와 ‘개개인의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은 별도의 사전 등록 전처리를 통해 하나의 n-gram 단위로 인식하게 한 후, 동의어 처리를 진행하였다. 중국어 역시 마찬가지로 쟈바에 별도의 사전 등록 후 동의어 전처리를 진행하였다.

3) 감성분석에서는 독자의 정서 반응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작품 원문에서 직접 인용된 단어는 불용어로 처리했지만, 토픽 모델링에서는 해당 단어들도 독자가 작품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간주되어 분석에 포함시켰

www.kci.go.kr

다', '입니다', '것' 등 문법적 기능어는 불용어로 지정하여 제외하였다. 분석에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모델을 사용하였다.[4] LDA 모델의 주제 수(K)는 다양한 K값에 대해 혼란도(perplexity)를 계산한 결과와 연구자의 도메인 지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3로 설정하였다. 혼란도는 모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값이 낮을수록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LDA 토픽 모델링 결과를 시각화 도구인 게피(Gephi)를 사용하여 각 토픽을 노드(node), 토픽 간 연관성을 엣지(edge)로 설정한 네트워크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 서평을 원문 수준에서 환원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번역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번역 차원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4. 분석 및 논의

먼저 감성분석을 통해 출발어권 독자의 정서적 경험이 목표어권 독자에게 유사하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한·중 독자 서평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를 분석하여 양국 독자의 보다 구체적인 작품 해석과 수용 양상을 분석하겠다.

4.1 감성분석 결과 비교·분석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된 한·중 독자 서평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양국 독자 모두 『채식주의자』를 읽고 호불호가 갈리는 유사한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다.

4) 토픽 모델링에는 단어에 벡터를 부여하고 차원 축소를 통해 근접한 단어들을 군집화하는 LSA(Latent Semantic Analysis)와 확률적 방법으로 문서의 토픽 분포를 추정하는 LDA 모델 두 가지가 있다. 최근에는 LSA의 한계를 보완한 LDA가 대규모 문서의 주제 분석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양연희 등, 2019, p. 431).

www.kci.go.kr

그림 2

한국 독자 서평 감성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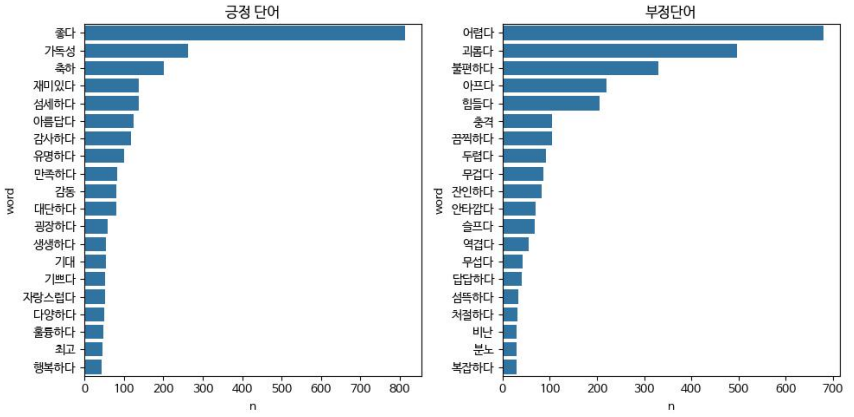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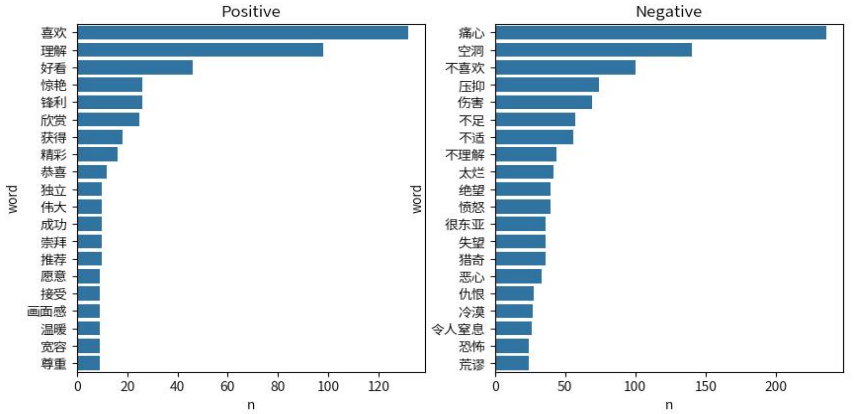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독자 서평 감성분석 결과



먼저 긍정 감정 군집을 살펴보면, 양국 독자 모두 작품에 대해 '좋다(喜欢)', '재미있다(好看)', '대단하다/훌륭하다/굉장하다(惊艳/精彩)', '생생하다(画面感)', '축하(恭喜)' 등의 유사한 정서를 보였다. 다만 '가독성', '섬세하다' 등 한국 독자들의 감성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키워드를 통해 국내 독자

www.kci.go.kr

들이 한강 작가의 문체적 아름다움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서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작가의 세밀한 감성으로 그려낸 작품,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나 사고 과정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작가의 그것은 한 차원 높은 세밀한 시각과 표현일 것이다.
>
> (j***125/2025. 01. 27)
>
> 작가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너무나도 찬란하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책을 원서로 읽고 그 원서 특히 내 모국어로 써 있는 경우에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가독성은 번역에 따지는 것이지만, 한강의 문체는 마치 소설 전체가 시처럼 느껴졌다. 말 따옴표도 없고 '사근사근', '분분히', '꾸덕꾸덕' 등의 한국어 특유의 시적인 의태어를 잘 써서 말을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다.
>
> (H****er/2024. 12. 1)
>
> 채식주의자를 처음 1회독했을 때는 불쾌했고, 2회독했을 때는 슬펐고, 3회독했을 때는 감탄했다. 처음엔 생생한 이미지가, 두 번째는 인간의 가련함에, 세 번째는 섬세한 직조에... 한강의 문학은 곱씹을수록 찬란하다. 소설이 주는 속도감과 재미도 있으니 여러 회 독하길 추천한다.
>
> (정*리/2024. 11. 15)
>
> 소설에 재미를 느끼게 해 준 책입니다.... 처음엔 노벨 수상자의 책이라 읽어볼까 하고 시작한 건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저는 저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했는데 문장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
> (k****h/2024. 12. 15)
>
> 묘사가 정말 뛰어난 책이었어요. 작가님께서 이야기하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도 정말 재밌었고요.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신 것들을 해석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화자가 달라지며 다양한 시선으로 주인공을 그려나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좋은 책 늘 감사합니다.
>
> (s*****300/2024. 11. 15)
>
> 过于令人惊艳的作品。读的过程中时刻联想到《狂人日记》。被视为"受害狂"的狂人看穿了本质伪善的社会中比比皆是"吃人者"；而被认为"疯了"的妻子则从丈夫、母亲、姐姐以及所有人身上嗅到肉食者的贪婪与邪恶，因此拒绝吃肉，拒绝成为食物链中的加害者与剥削者。
>
> *너무도 훌륭한 작품이다. 읽는 내내 (루쉰의) 『광인일기』가 떠올랐다.*

www.kci.go.kr

'피해 망상증 환자'로 취급받던 광인은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인간을 잡아먹는 자들'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미쳤다'고 여겨진 아내 역시 남편, 어머니, 언니,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육식하는 자들의 탐욕과 사악함을 감지하고,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하며 먹이사슬 속 가해자와 착취자가 되기를 거부한다.[5)]

(李**/2021. 09. 12)

看得越多，越会对东亚文化体系下的暴力有着更为深刻的理解和认同。与其一遍遍重复"你要活下去"这样的话，不如追问一下为什么不想活下去.....韩江跟金爱烂都同属于擅长描写主角细腻内心的那一类型，相比于平铺直叙的《金智英》，这样的写作特点也更易被女性读者体悟.....

읽을수록 동아시아 문화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폭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너는 살아야 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왜 살고 싶지 않은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한강과 김애란 모두 섬세한 내면을 그려내는 데 뛰어난 작가들인데, 단순하게 서술된 『82년생 김지영』보다 이런 유형의 전개가 여성 독자들에게 더 깊이 다가간다고 생각한다.....

(麦**miki/2022. 08. 21)

一开场就很惊艳以至于一口气读了九十页停不下来，三个独立标题其实是围绕着同一个家庭的故事，男性视角的独白，女性视角的独白都是细腻，表面看起来是描写女性在婚姻中的遭遇，更深层次的还是社会集体的父权凝视，很多场景都很能共情，那些打着爱的名义，实则一点都不了解不尊重你的东亚父母.....

처음부터 너무 강렬해서 단숨에 90페이지를 읽어 내려갔다. 멈출 수가 없었다. 세 개의 독립적인 제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다. 남성과 여성의 시점에서 풀어낸 이야기 모두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겉으로 보기엔 여성의 결혼 생활을 그린 듯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부장적 시선에 대한 이야기이다. 많은 장면들이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해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동아시아의 부모들.....

(Ei**/2024. 11. 28)

하지만 부정 감정 군집에서는 양국 독자의 평가가 다소 나뉜 모습을 보였다. 우선 작품의 줄거리에 대해서는 양국 독자 모두 '괴롭고(痛苦)', '불편

5) 본문에 인용된 중국 독자 서평의 한국어 번역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www.kci.go.kr

하고(不适)', '마음이 아프고(痛心)', '답답하고 힘든(压抑)'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독하게 어렵다. 그럼에도 처절하게 이끌린다. 불쾌함이 덩어리진 이야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영혜를 보며 강요되고 억압되었던 이 사회의 문제점들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다. 작가의 의도 속에서 내가 만난 '채식주의자'들을 괜스레 떠올려 보게 된다.

(j*****04/2025.04. 17)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읽을수록 강렬한 몰입감을 주는 소설이었다.... 그녀의 행동이 극단으로 치달을수록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폭력성과 이기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이를 바라보는 과정에서 불편함과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한강 특유의 섬세하고 시적인 문장은 무겁고도 아름다웠고, 인간 존재와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다.

(t********5/2024. 11. 17.)

정말 아프고 충격적인 내용인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정도예요. 주인공의 아픔과 예민함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한동안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서 검색하다 영화도 보게 되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리메이크가 되길 바라요. 여주인공이 아까웠어요.

(j*****4/2024. 12. 14)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과 가슴속에서 무언가 걸린 듯한 답답함의 무저갱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다. 챕터 하나하나에 감정 소모가 굉장해서 한동안 다신 읽고 싶진 않았다. 내가 보는 흰 종이 위의 검은색 활자가 심연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였으니... 그러나 문체와 필력이 갖고 오는 막중한 무게의 답답함은 그 어느 책, 매체보다 강렬했다. 얼마나 강렬했던지, 종이 한 장을 넘길수록 마음에 무엇인가 쌓이는 기분.....

(지*군/2024. 12. 3)

很吸引人同时也是很痛苦的阅读体验。接连不断发生的新闻事件，都在说明，男人的疯可以拔刀挥向他人，女性的疯最终直指的是毁灭自己。

강렬하게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고통스러운 독서 경험이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남성의 광기는 타인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만, 여성의 광기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魏****why/2024. 11. 17)

最近看了很多厉害的韩国女作家的书，但这本还是很与众不同的。极度的压抑当中，又有极度的解放，肉食者对素食者的暴力、正常人对异常者的

www.kci.go.kr

暴力、男性对女性的暴力，永远无法达成和解。故事并不复杂，但却读得人胸闷。

최근에 훌륭한 한국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읽었지만, 이 작품은 그중에서도 단연 독특했다. 극도의 억압 속에 극도의 해방이 공존하고, 육식자가 채식자에게 가하는 폭력, 정상인이 비정상인에게 가하는 폭력,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 반복된다. 이들 사이에는 결코 화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읽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叶*/2021. 10. 03)

东亚共同的议题，伪装成爱的亲情，互为陌生人的婚姻，枷锁下的自由，没有自己人生的女性。第三章看得心痛，姐姐发出理解者的哀鸣，表达这世界对女性压迫、家庭对个人压迫的抗议。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 — 사랑을 빙자한 가족애, 서로에게 타인이 되어버린 부부, 족쇄 속의 자유, 자기 인생이 없는 여성들..... 3장을 읽으며 유독 마음이 아팠다. 언니는 영혜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절규했고, 이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개인에 대한 가족의 억압에 대한 항의처럼 느껴졌다.

(尚*/2024. 10. 11)

이와 같은 정서적 유사성은 번역본이 사건의 기술과 줄거리의 핵심 전개를 비교적 충실하게 재현했음을 시사한다. 즉 번역가는 정보전달의 차원에서는 원작의 스토리텔링 구조와 중심 갈등, 핵심 장면들은 '정확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번역은 명확한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하는 실용 번역과 달리 줄거리뿐 아니라 언어적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독자들은 작품 내용에 대해서는 '어렵고', '무겁다'고 평가하지만, 작품의 상징성과 서술 방식에 내재된 문학적 층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국 독자들은 작품의 문학성에 대해 '빈약하다(单薄/寡淡)', '공허하다(空无)', '깊이가 부족하다(不深刻)', '피상적이다(很皮毛)',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只挖出了七八成)', '개념만 앞섰다(概念先行)' 등 이른바 '공허함(空无)'을 기반으로 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读着顺畅但毫无感触。写作最难的是驾驭荒谬感。莫名且有意堆砌的荒谬则会让人感到无聊。想表达的情绪不适，视角也不宏大，于是文章在直观

www.kci.go.kr

上就十分哀怨，实在不足以经典化。
읽기는 매끄럽지만 전혀 감흥이 없다.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공허함을 지양해야 한다. 이유 없이, 또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공허함은 오히려 지루함을 준다. 전달하려는 감정의 불편함도, 시각의 스케일도 크지 않아 글이 직관적으로 한이 서린 듯 느껴질 뿐 도저히 고전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부족하다.

(楹*/2024. 10. 14)

没什么单纯阅读文字的乐趣，不知是不是韩语本身的局限性。阅读韩国文学和看韩影的观感本质上差不多，都有种生怕观众看不懂的感觉，情绪堆得太过.....单薄、极端。
언어 자체에서는 순수한 독서의 즐거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국어의 한계 때문인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한국 문학을 읽을 때나 한국 영화를 볼 때나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관객이나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까 봐 감정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얕고, 극단적으로 느껴진다.

(枸**杞/2021. 10. 08)

不知道以为写的是剧本，没有内核，只有故事，非常皮毛。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극본으로 착각할 법도 하다. 내실은 없고 줄거리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매우 피상적으로 느껴진다.

(去*****走/2021.09. 17)

중국 독자의 이러한 반응 차이는 단순한 독서 취향의 문제를 넘어 번역을 통한 문학 텍스트의 재구성과 수용 양상에 있어 목표어권 독자가 가지는 특정한 기대치와 텍스트 해석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번역이 원문의 '문체 등가성'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평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체적 한계나 어색한 표현에 대한 비판은 전술했듯이 번역의 개입을 고려할 때 원작 자체보다는 번역본의 문체적 구현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 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감성분석에서 후쟈오퉁의 역본은 서사적 전달력은 유지되었으나 문학 텍스트의 핵심적인 예술성과 감각적 표현은 언어 전환 과정에서 일부 손실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문체 재현의 실패 혹은 미흡한 번역 전략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 차이를 보다 구조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중국 독자들이 『채식주의

www.kci.go.kr

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분석하겠다.

4.2 토픽 모델링 결과 비교분석

독자의 이해를 돕고 역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양국 독자 서평에 대한 토픽 모델링 결과는 <표 1>에 취합하였고 게피로 시각화한 결과는 각각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표 1
한중 독자 서평 토픽 모델링 결과 취합본

한국			중국		
Topic 1	Topic 2	Topic 3	Topic 1	Topic 2	Topic 3
영혜	한강	깊다	女性主义 페미니즘	英惠 영혜	女性 여성
폭력	노벨상	여운	男性 남성	姐姐 언니	韩江 한강
언니	어렵다	인간	社会 사회	女性 여성	英惠 영혜
자신	여운	채식 주의자	英惠 영혜	文学性 문학성	文笔 문체
채식 주의자	작품성	사람	姐姐 언니	诺奖 노벨상	植物 식물
남편	좋다	한강	不喜欢 별로다	韩国 한국	隐喻 상징
나무	채식 주의자	사회	痛心 마음이 아프다	社会 사회	空洞 얕다
고기	문체	폭력	世界 세계	剖析 파헤치다	视角 시점
사람	아름답다	작품	作品 작품	韩江 한강	语言 언어
먹다	느끼다	삶	故事 이야기	喜欢 좋아하다	没有力量 힘이 없다
여운	섬세하다	이야기	丈夫 남편	觉醒 각성	描写 묘사
형부	수상	이해	韩江	素食	作品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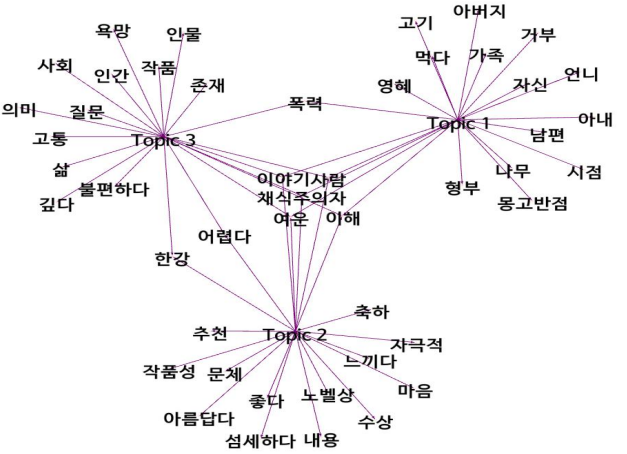
			한강	채식	작품
이해	마음	인물	反抗 저항	理解 공감	文学性 문학성
이야기	이해	고통	素食 채식	痛心 마음이 아프다	逻辑 논리구조
아내	추천	어렵다	不理解 공감 안감	锋利 날카롭다	社会 사회
시점	축하	질문	很东亚 동아시아적	欲望 욕망	猎奇 엽기적
몽고반점	사람	존재	文学性 문학성	丈夫 남편	情节 내용
아버지	이야기	의미	韩国 한국	姐夫 형부	素食 채식
거부	자극적	욕망	一棵树 나무	语言 언어	翻译 번역
가족	내용	불편하다	压迫 억압	不优美 아름답지 않다	读者 독자

한국 독자의 경우, Topic 1은 '영혜', '폭력', '언니', '남편', '가족', '아버지', '몽고반점', '육체', '거부' 등 인물 및 관계 중심 키워드로 구성된다. 이는 국내 독자들이 작품 속 주요 인물들의 갈등 관계와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 특히 육체적 본능과 사회적 억압 간의 충돌에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즉 주인공 영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 내의 갈등, 폭력, 억압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긴장이 독서 경험의 주요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www.kci.go.kr

그림 4

한국 독자 서평 토픽 모델링 결과



Topic 2에서는 ‘한강’, ‘노벨상’, ‘작품성’, ‘문체’, ‘수상’, ‘아름답다’, ‘어렵다’, ‘자극적’ 등 문학적 평가 및 작품성 관련 키워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독자들은 『채식주의자』를 단순한 이야기 차원을 넘어 노벨상 수상작으로서의 문학적 가치와 문체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어렵다’, ‘자극적’ 등 키워드는 작품 내용은 비록 난해하고 호불호가 갈리지만 문체적 ‘아름다움’과 작품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제시한 실제 서평에서도 확인되듯이 한강 작가의 “세밀한 시각과 표현”, “좋은 가독성”, “여운이 남는 문체”, “섬세한 직조”, “곱씹을수록 찬란한 문학성” 등이 빈번히 언급됐다. 이는 한국 독자들이 작품 내용상의 불편함과 난해함 역시 문학적 깊이의 일환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Topic 3에서는 ‘깊다’, ‘인간’, ‘사회’, ‘폭력’, ‘삶’, ‘존재’, ‘고통’, ‘불편하다’ 등이 주요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이는 독자들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 사회적 억압, 삶의 본질과 같은 철학적·존재론적 의미로 『채식주의자』를 해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자들은 작품이 던지는 불편한 질문과 고통스러운 주제를 깊이 성찰하며, 이를 통해 ‘사회’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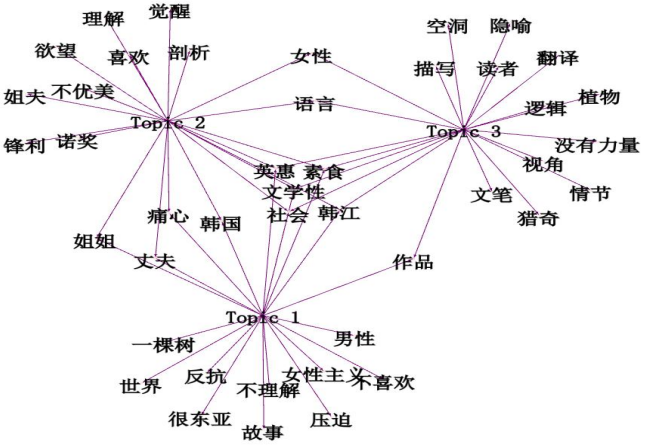
중국 독자의 경우, 국내와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Topic 1에서는 '女性主义(페미니즘)', '男性(남성)', '社会(사회)', '压迫(억압)', '反抗(반항)', '很东亚(동아시아적)' 등 페미니즘적 시각과 동아시아 사회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키워드가 두드러지게 등장하였다. 이는 개인의 내면 심리, 인간의 본질, 존재론적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국내 독자들과 다소 달리, 중국 독자들은 『채식주의자』를 여성주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과 여성의 저항'이라는 사회적·구조적 프레임을 통해 작품을 읽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동아시아적'이라는 키워드는 중국 독자들이 작품 속 여성 인물의 고통과 사회적 억압을 전형적인 동아시아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동아시아성'은 단순한 지리적 범주가 아닌 전통적인 가부장제 질서와 여성의 희생 및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규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무력감과 체념의 감정 구조를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인식 틀을 의미한다. 앞서 인용한 서평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 독자들은 "사랑을 빙자한 가족애, 서로에게 타인이 되어버린 부부, 족쇄 속의 자유, 자기 인생이 없는 여성들"을 동아시아의 공통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또 다른 서평[6]에서는 이 작품이 동아시아 여성의 억압적 현실을 신체적 공포의 은유(상징)로 극대화하며, 사회적 리얼리즘과 초현실적 기법이 교차하는 문학적 실험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6) 这本书让人联想到《钛》和《某种物质》这类女性题材的肉体恐怖片，第三章的结尾可以连上作者的另一本书《植物妻子》。她不是在写故事，是在执行一个概念，把东亚女性的经历变成抽象的肉体恐怖，在隐喻符号、女性现实和超现实之间写出微妙且耐人寻味的东西，就是文学的魅力吧。(褒**影/2024. 10. 21)

www.kci.go.kr

그림 5

중국 독자 서평 토픽 모델링 결과



흥미로운 점은 '동아시아성'에 대해 앞서 감성분석에서 언급했듯이 '공감이 간다/이해한다'라는 긍정 평가와 다르게 일부 서평에서는 비판적 거리두기로 호불호가 갈리는 양상도 보였다. '不理解(이해할 수 없다)'와 '不喜欢(좋아하지 않는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서평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저항 방식에 대해 불편함과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서평에서는 "정해진 틀(동아시아 여성) 안에서 특정 집단을 묘사하다 보니 여성들은 각성 이전에는 하나같이 순종적이고 무기력하게 그려지고 각성의 결말 역시 죽음으로만 단일화된다"며 "언니와의 병렬적인 서사가 오히려 이런 빈약한 서사를 더 부각시켜 여성의 처지를 더 비극적으로 만들고 악화시키는 듯 보였다"[7]고 지적하였다. 즉, 일부 중국 독자들은 작품 속 여성 인물의 선택이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자해적 방식으로만 귀결되는 점을 문제시하며 오히려 이러한 설정이 여성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7) 比较失望。以既定模式去描绘特定人群，女性觉醒前清一色忍让麻木，女性的觉醒的出口唯一化为死，与姐姐的并行描写更突出了贫乏，在我看来反而恶化了女性的这种处境。(小**娃/2021. 10. 02)

www.kci.go.kr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번역 과정에서 일부 원문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후쟈오퉁 역본에서는 중국 내 출판·검열 및 이데올로기적 규제의 영향으로 형부가 영혜를 성적으로 침범하는 장면들이 일부 삭제되거나 완화되었다. 이러한 삭제와 완화는 독자들의 독서 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중국 독자는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素食者的斗争是软抵抗式的，但这种软抵抗不免显得呆滞。它是以自我放逐为结果的，而非真正意义上的抗争，在无所谓被侵犯的奇情中放大了他人对其的压迫，更多体现的还是社会困境对人的围猎和被动的无奈。……很东亚，也很窝囊。
> *채식주의자의 저항은 일종의 수동적인 저항으로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진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버리는 선택으로 귀결되며,* ***특별히 침해당한 것도 아닌 기묘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타인의 억압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동아시아적이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
> (楹*/2024. 10. 04)
>
> 这样懦弱空虚的女性蛮难共情的.....所以说是对于男性施暴者的刻画也不够强烈.....缺乏逻辑链接.....
> ***이처럼 나약하고 공허한 여성 캐릭터는 공감하기가 꽤 어렵다****..... 게다가* ***남성 가해자에 대한 묘사도 충분히 강렬하지 않고, 논리적 연결성*** *역시 부족하다.....*
>
> (th*****on/2025. 01. 09)
>
> 好窒息，整本书全是狂妄自大吃肉喝血的男性和被踩在脚下不被看见的女性，以及大陆译本对有关女性性征描写的删减无一不是大型父权狂欢盛宴
> *너무 답답하다. 작품 전체가 거만하고 오만하게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남성들과 발 아래 짓밟히며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들로 가득하다.* ***게다가 중역 대륙 버전에서는 여성의 성적 묘사가 삭제되었는데,*** *이 또한 거대한 가부장적 향연으로 느껴진다.*
>
> (El***/2024. 12. 11)

"특별히 침해당한 것도 아닌 기묘한 상황 속에서 억압이 과장되었다"는 평가는 번역본에 나타난 서사의 공백과도 일정 부분 연관이 있어 보인다[8]. 다른 서평에서 지적하듯이 "남성 가해자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강렬하지 않

www.kci.go.kr

아” 중국 독자들은 영혜를 다소 “나약하고 공허한” 인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중국 독자들은 완화된 번역본으로 인해 원작이 의도한 폭력성과 억압의 직접성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주인공에 대한 공감 형성과 작품 전반의 서사적 긴장감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첫 번째 토픽에서 중국 독자들은 『채식주의자』를 ‘동아시아 여성 억압’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페미니즘적 비판 의식’과 ‘동아시아적 무력감’이라는 이중적 인식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자해적인 저항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동아시아 사회의 억압적 구조를 직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가적 수용 태도는 단순한 문학적 취향의 차이를 넘어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번역의 서사 조정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Topic 2에서는 ‘英惠(영혜)’, ‘姐姐(언니)’, ‘女性(여성)’, ‘觉醒(각성)’, ‘丈夫(남편)’, ‘姐夫(형부)’, ‘欲望(욕망)’, ‘理解(이해가 간다)’, ‘社会(사회)’, ‘剖析(파헤치다)’, ‘锋利(날카롭다)’, ‘诺奖(노벨상)’, ‘喜欢(좋아한다)’, ‘语言(언어)’, ‘不优美(아름답지 않다)’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영혜’, ‘언니’, ‘여성’, ‘각성’, ‘남편’, ‘형부’, ‘욕망’ 등 인물 중심의 키워드에서 독자들이 작품을 인물 중심으로 읽되 해당 인물이 겪는 심리적 갈등과 내면의 전환, 그리고 그것이 발현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Topic 1에서 나타나듯이 페미니즘적 해석 틀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 ‘파헤치다’, ‘날카롭다’ 등 사회 비판적 키워드를 통해, 중국 독자들이 작품을 단지 심리적·가정적 서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를 예리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벨상’, ‘좋아하다’ 등의 긍정적 키워드는 『채식주의자』가 사회적·문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판성과 문학성을 겸비한 의미 있는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문체나 언어 스타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감성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일관된 미학적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언어’, ‘아름답지 않다’라는 키워드는 중국 독자들이 중역본의 언어 형식에서 문학적 세련미나 미적 아름다움이 결여되었다고 인식하는 비판적 반응을 반영한다.

8) 축역·삭제에 관한 내용은 4.3.4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www.kci.go.kr

之前读过不少韩国小说都是社会流，这给我一种感觉就是韩国人很擅于剖析社会。但是不擅长写"真正的文学"——但《素食者》不一样，它有强烈的文学性，不在于语言的优美（和其他的韩语译本一样朴素到谈不上优美），却充满隐喻，令人心折和心痛：在这个充满令人窒息的"肉的气味"的世界，这个女人想要变成一棵树，无论是她还是她身边的人，都挣扎于无奈和荒谬。

예전에 읽은 많은 한국 소설들은 대부분 사회파 작품이었다. 그래서인지 한국 작가는 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하는 데 능숙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순수 문학'을 쓰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는 달랐다. 이 작품은 강한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 그 문학성은 언어의 아름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은유와 상징에서 비롯된다 ***(다른 한국 문학 번역본들처럼 언어는 그리 화려하지 않은 편이다).*** *이 작품은 마음을 사로잡고 동시에 아프게 합니다. 육식의 냄새로 가득 찬 숨 막히는 세상 속에서, 한 여성이 나무가 되고 싶어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상 깊었고, 그녀와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 모두가 부조리와 무력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桃****生/2021. 09. 9)

算是我看过的韩国文学中最好的，立意和情感不错，但韩国作家的文字一向很弱，而语言是文学的土壤，在贫瘠的土壤上无法开出美丽的花。

지금까지 읽은 한국 문학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편에 속한다. 주제의식과 감정의 결은 인상적이었지만, ***한국 작가들의 문장력(문체)은 항상 아쉽다. 언어는 문학의 토양인 만큼, 척박한 땅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어렵다.***

(鳕*/2021. 09. 16)

중국 독자들은 작품의 내용에는 감동을 표하면서도 언어 자체의 표현력에는 분명한 한계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 독자가 작품의 문학성을 평가할 때 언어적 미감과 문체의 운율, 감각적 재현을 핵심 요소로 간주함을 시사한다. 독자가 기대하는 이러한 문체의 아름다움, 세련됨, 예술적 감수성은 단지 원문의 의미 전달에 충실한 번역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우며 번역가의 문체 전략과 감각적 재현 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낳는다. 중국 독자들이 『채식주의자』의 언어를 '朴素(소박하다)' 내지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평가한 이유는 한국어 원문 자체의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이 중국어의 감각적 리듬과 미학적 기대와는 다소 상충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번역

www.kci.go.kr

가가 원문의 미묘한 정서와 서정적 함축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거나, 중국어 화자들에게 친숙한 문체로 전환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Topic 2에서 드러나는 중국 독자의 반응은 내용과 주제 측면에서는 작품의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는 미학적 불만과 거리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는 번역 텍스트의 언어 형태가 수용자의 문학성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Topic 3에서는 '情节(플롯)', '逻辑(논리구조)', '隐喻(상징/은유)', '文学性(문학성)', '空洞(얕다)', '文笔(문체)', '语言(언어)', '没有力量(힘이 없다)', '翻译(번역)', '读者(독자)' 등 문체 및 번역 관련 키워드가 보다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서평에서는 번역본의 언어가 '공허하다', '힘이 없다', '직설적이고 얄팍하다'는 표현과 함께, 원작이 지닌 '상징(은유)의 복합성'이나 '문체적 시적 밀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문체적 이질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 不知道是不是翻译的问题，很多描述让人觉得又急又浅——"她以长期独居的人才有的坚定眼神望着拍打在车窗上的雨珠"——这个故事中所有的人物形象都通过这种第三方直接下定义的方式塑造，太急迫于让读者展示这是个怎样的人容易欲速则不达，如何让这个定义能使读者自己下出来则更考验功底。三位主角视角的切换、鲜艳与出格的情节、短篇间相互用暗喻连接彼此的设置都非常巧妙，也愿意留给读者很多解释空间，写得好的话可以是一个细思极恐猛扎你几刀的怪诞故事，表现成现在这样的确太遗憾了。
>
> ***<u>번역 때문인지 많은 묘사들이 조급하고 얕게 느껴졌다.</u>*** *가령 '她以长期独居的人才有的坚定眼神望着拍打在车窗上的雨珠'와 같은 문장 말이다. 이 작품의 모든 인물은 이렇게 제삼자의 시선으로 성급하게 정의되며 형상화되는데, 독자에게 '해당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지나치게 조급한 나머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여지를 두는 것이야말로 작가의 진짜 역량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 명의 주인공의 시점 전환, 과감하고 재치 있는 서사 전개, 그리고 단편들 간에 암시적으로 연결된 설정 등은 매우 정교하고 인상적이다. 잘만 쓰였다면 오싹하고도 날카로운 이야기로 완성됐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서 안타깝다.*

www.kci.go.kr

(未***柔/2021. 09. 24)

不知道原作者还是翻译的问题，因为太刻意了冲淡了应有的痛苦压抑，又因为文笔导致所有应该摄人心魄的意象都看着像小学生写景一样繁琐无聊。

원작의 문제인지 번역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의도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오히려 느껴져야 할 고통과 억압이 희석된 느낌이다.* ***문체****와* ***상징****도 문제였는지, 본래 강렬했어야 할 이미지들이 마치 초등학생의 묘사처럼 번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Dr.********/2024. 10. 12)

翻译太过浅显直白了,感觉很多时候的描写不能引起共鸣...

번역이 너무 직설적이고 얄팍하게 느껴졌다. *많은 장면의 묘사가 공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葉*/2021. 09. 24)

写作手法陈旧保守，唯一可以拿出来说的，也许就是故事里的各种象征意义了，然而作者的笔力撑不起它们。

글쓰기 기법이 보수적이며, 굳이 내세울 만한 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야기 속 다양한 ***상징****일 것이다. 그러나 작가의 필력이 그것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远***鸿/2024. 10. 17)

这本书里的三个故事，像是为了凸显主题刻意把所有的伦理情节都安插进去，然而叙述不到位导致逻辑不顺，比如做梦和吃素的关系很牵强，树有什么隐喻也没交待清楚，英惠从吃素到最后的精神失常也有点莫名其妙...

작품 속 세 편의 이야기는 마치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모든 윤리적 장면을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하다. 그런데 서술이 충분치 않아 ***논리****가 매끄럽지 않다. 예를 들어, 꿈과 채식의 관계는 상당히 억지스럽고,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영혜가 채식을 시작해 결국 정신이상에 이르는 과정도 다소 뜬금없다.*

(喜*/2021. 09. 24)

이처럼 번역된 작품의 문체적 완성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원작과 역문 모두에 대한 독자의 의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번역', '상징(은유)', '논리구조' 등에 대한 지적은 번역문이 원작의 문체적 특성과 정서적 뉘앙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며, 이는 독자들에게 언어적 거리감과 정서적 불일치를 경험하게 한다. 특히 일부 독자들은 문체 번역이

www.kci.go.kr

내포한 본질적 난제에 주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번역 품질에 대한 불만을 넘어 문학 텍스트에서 문체 번역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요컨대 상기 토픽 모델링 결과를 통해 한·중 양국 독자 모두 『채식주의자』를 여성의 정체성과 사회적 억압, 내면적 고통이라는 주제 의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독자들이 작품을 존재론적·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중국 독자들은 페미니즘과 동아시아 사회 구조의 문제로 해석하며, 특히 중역본 문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수용 차이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원문과 번역문 사이에서 문체가 어떻게 전달·변형되었는지를 구체적 번역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4.3 번역 사례 검토

앞서 수행한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독자 서평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언어', '상징(은유)', '논리구조', '삭제' 등을 중심으로 원작과 중역본의 실제 예문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4.3.1 언어 차이와 미적 감수성 약화

작품 언어 형식에 대한 양국 독자의 시각차에는 우선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구조적 차이가 자리한다. 한국어는 교착어로, 길고 복잡한 수식 구조가 특징이다.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적 특성을 지니며 문장 구조가 간결하면서 논리적 흐름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를 중국어로 직역할 경우, 문장이 장황하게 느껴지거나 논리적 연결성이 약화되어 문장이 밋밋하거나 심미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문학적 수용 기대 측면에서도 양 언어권 독자 간 차이가 존재한다. 중국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모옌(莫言)이나 장아이링(張愛玲)의 소설에서 보이듯, 화려한 수사, 운율감 있는 문장, 그리고 이미지 중심의 의상화(意象化)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한강의 절제된 미니멀리즘 문체는 이러한 기대와 대비되어 번역 과정에서 그대로 옮겨질 경우, '언어에 힘이 없다'라거나 '문장이 아름답지 않다/소박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살펴보겠다.

www.kci.go.kr

<예시 1>
원문: 일그러진 얼굴로 날뛰는 당신을 나는 우두커니 바라보았어.
번역문: 我愣愣地看着一脸狰狞、大发雷霆的你。
제안: 你五官拧结地癫狂发作，我却只是木然呆望/僵如枯桩。
<예시 2>
원문: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여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시선으로, 차창을 두드리는 세찬 빗줄기를 바라본다.
번역문: 她以长期独居的人才有的坚定眼神望着拍打在车窗上的雨珠。
제안: 雨滴在窗玻璃上蜿蜒而下，她望着，眼里盛着经年独居者才懂的寂静。

우선 <예시 1>에서 후쟈오퉁의 역본은 '당신'을 중심으로 한 장문의 수식 구조와 어순을 그대로 모사하였다. 이는 명사 앞 장문 수식을 기피하고 정보를 최대한 단문으로 분할하는 중국어의 통사적 특성과 상충된다. 이러한 구조 전이를 고려하지 않은 번역은 문체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독자의 읽기 리듬을 저해한다. 또한 원문이 의도한 서술의 여백과 정서적 모호성이 '一脸狰狞(얼굴이 사납다)', '大发雷霆(몹시 화를 내다)'와 같은 가치 판단적·감정 규정적 표현으로 대체되면서 문학적 긴장이 약화됐다. 예컨대 원문의 '일그러진 얼굴'은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는 열린 기호이지만, '一脸狰狞'은 부정적 평가를 선제적으로 부여해 독자의 자율적 해석을 제한한다. 이 경우, '面容扭曲(얼굴이 일그러지다)'나 '五官拧结(얼굴 표정이 뒤틀리다)'와 같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표현이 원작의 심리적 모호성을 보존하는 데 더 적합하다. 또한 감정 중심의 '大发雷霆'보다는 '狂乱挣扎(미친듯이 몸부림치다)'나 '癫狂发作(미쳐 날뛰다)'처럼 행위 중심 표현이 원문의 '날뛰다'가 지닌 신체적 혼란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우두커니'의 경우에도 단순 구어체인 '愣愣地(멍하게)'보다 '木然呆立(나무처럼 멍하게 서있다)'이나 '僵如枯桩(말라버린 그루터기처럼 뻣뻣하다)'처럼 생리적 경직감과 심리적 소외를 함께 전달하는 은유적 표현이 적절하다. 더불어 번역문 '我看着你(나는 .... 당신을 바라보았어)'는 시선의 주체를 '나'로 설정해 권력 구도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 원문에서는 인물이 외부 사건에 의해 경직된 수동적 상태로 제시되므로 번역 과정에서 피동적 시전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 인물 관계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데 더 바람직하다.

www.kci.go.kr

<예시 2>는 앞서 중국 독자 서평에서 “모든 인물이 제3자의 시선으로 성급하게 정의됐다”는 비판을 받은 사례로, 장황한 문장 구조와 선제적 의미 고정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이는 <예시 1>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단문 중심 정보전달 경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문의 장문 수식 구조와 어순을 그대로 모사하여 문체적 이질감을 유발한 결과이다. 특히 원문의 ‘단단한 시선’이 지닌 고독과 자기완결성 등 다층적 정서가 ‘坚定眼神(결의에 찬 시선)’으로 번역되며 단선적 의미로 축소되었고, ‘长期独居的人才有的(오랫동안 혼자여온 사람만이)’ 역시 시적 시간성과 주체적 공감을 담기보다 원문 어순을 그대로 모사한 사실 전달로 환원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经年(오랜 세월 속에서)’과 ‘懂(터득하게 되는)’처럼 시공간적 깊이와 감정의 공명을 강화하는 어휘를 활용하고, 문장 구조 역시 ‘사물→인물→의식’의 점층적 배열로 재구성하여 중국 현대문학의 서사 감수성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번역가가 감정의 해석이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선제적으로 고정할 경우, 원문이 지닌 미학적 모호성과 독자 참여적 해석의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특히 『채식주의자』와 같이 절제된 문체와 내면 심리의 불안정성이 핵심 미학으로 작용하는 작품의 경우, 이러한 해석의 여백을 보존하는 번역 전략이 더욱 요구된다. 이는 문체 번역이 단순한 언어 재현을 넘어 문학적 정서와 미감을 목표 문화권에 맞게 창의적으로 중재하는 행위임을 시사한다.

4.3.2 상징·은유

『채식주의자』는 식물, 피, 동물성, 비인간성 등의 이미지가 유기적으로 얽힌 상징 체계를 통해 존재의 경계와 폭력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탐색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상징과 은유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신 것들을 해석하는 재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 독자들은 ‘상징’을 ‘얕다’, ‘논리’와 연결 지어 부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표 2>의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www.kci.go.kr

표 2
번역 예시

원문	번역문	제안
그러나 이제는 내 손이 어깨에 닿기만 해도 조용히 몸을 피했다..... “뭐가 문제야?” “피곤해.” “그러니 고기를 먹으라고. 고기를 안 먹으니 힘이 없지. 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사실은.” “뭐?” “……냄새가 나서 그래.” “냄새?” “고기냄새. 당신 몸에서 고기냄새가 나.” .....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可现在，连我的手碰到她的肩膀，她都会悄悄地躲闪..... “这到底是为什么？” “我累。” “所以我才让你吃肉啊。不吃肉哪有力气，以前你可不是这样的。” “其实……” “嗯？” “……其实是因为有味道。” “味道？” “肉味。你身上有肉味。” ..... “……你的每一个毛孔都散发着那股味道。”	可现在，就连我的手刚一搭上她肩膀，**她也像避开秽物似的悄悄缩身**..... ..... “累？所以我让你吃肉啊！不然这身**血肉**，哪来的力气？你从前不是这样！” ..... “.....是你身上的**气味**。” “气味？” “**肉的腥气**。你整个人都在往外渗**着那股腥气**。” “……，都在渗透**那股腥味**。”

‘육식’은 작품 속에서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폭력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영혜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그 이유를 남편의 몸에서 나는 ‘고기 냄새’라고 설명한다. 후쟈오통의 중역본은 표면적으로는 원문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나, ‘고기’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은유적 층위를 충분히 부각하지는 못했다. 예컨대 ‘고기 냄새’를 단순히 ‘肉味(고기 냄새)’로 옮기는 경우, 의미 전달 차원에서는 정확할 수 있으나 영혜의 꿈에 등장하는 “붉은 피가 떨어져 내리는 시뻘건 고깃덩이리”의 이미지와 상징적 연계성이 약화되어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는 심리적·상징적 배경, 즉 폭력성과 잔혹성에 대한 근원적 거부를 독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味道(냄새)’라는 표현은 의미상 중립적이어서 원문 ‘냄새’가 지닌 부정적·감각적 뉘앙스를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고기의 생물학적·감각적 특성과 함께 혐오감을 동시에 환기시키는

www.kci.go.kr

원문의 효과를 충분히 재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맥락상 '腥味(비린/누린 냄새)', '腥气(비린/누린 기운)', '气味(불쾌한 냄새)' 등과 같이 불쾌감이 결합된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고기'가 작품에서 지니는 상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她也像避开秽物似的悄悄缩身(그녀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조용히 몸을 움츠렸다)'처럼 남편의 손길이 닿자마자 영혜가 몸을 움츠리는 장면을 '불결한 사물을 피한다'는 비유를 통해 '고기'와 혐오·거부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결국 '고기'의 물질적 차원만을 재현한 번역은 독자가 작품의 심층적 의미망, 즉 폭력, 피해, 거부의 상징 체계에 접근하는 데 한계를 갖게 한다.

4.3.3 논리구조

중국 독자들의 서평에서 작품의 논리적 구조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작품의 표제작 「채식주의자」 에서 나타난 인물의 시점 전환과 문체 변화가 번역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작에서는 남편의 시각(1인칭 화자)과 영혜가 자신의 꿈을 기술하는 시점을 명백히 구분하기 위해 편집과 문체상에 차이를 두었다. 가령 영혜의 꿈에 대한 묘사는 본문과 구별되도록 이탤릭체를 적용해 시각적으로 전환을 부각하였다. 또한 어역(register) 차이를 포함하여 남편 시점의 담담하고 일상적인 어조와 대비되도록 영혜 시점에서는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와 같이 짧고 단절적인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혼란과 초현실적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중역본에서는 이러한 편집상의 구분이나 문체 차이가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 영혜의 초현실적 서술이 남편 시점의 평이한 서술과 동일한 문체로 처리되면서 시점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독자에게 거의 인지되지 않는다. 게다가 번역본에서는 남편과 영혜 모두 '我(나)'라는 동일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 문맥만으로 화자를 식별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이로 인해 독자는 장면 전환과 화자 변화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작품 해독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번역 과정에서 중국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인과적·논리적

www.kci.go.kr

연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원작은 이미지 중심의 감정 흐름을 중시하여 접속사나 전환 표지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그대로 번역문에 재현하면 중국어 화자에게는 텍스트의 논리적 연속성이 약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가령 원작에서 영혜의 회상이 갑작스럽게 개에 다리를 물려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으로 전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전환은 '记得小时候(어렸을 때...)'와 같은 회상 표지나 적절한 접속어를 삽입함으로써 독자에게 전환의 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번역본에서는 이러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사건 간의 인과 관계와 시간적 연계성이 흐려지고 의미 해석의 모호성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4.3.4 삭제

전술했듯이 단편 「몽고반점」에서 형부가 예술 작업을 구실로 영혜의 신체를 침범하는 장면이 번역 과정에서 일부 완화·삭제되었다. 특히 '삽입', '성기', '아랫도리'와 같은 신체 부위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어휘가 삭제되어 해당 장면이 전달하는 성적 폭력의 강도와 노골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번역 과정에서 자극적인 장면을 완화하는 과정이 서사의 인과적 연속성마저 훼손하였다. 가령 원문에서 형부가 영혜의 엉덩이를 오랫동안 핥으며 "이걸 내 혀로 옮겨왔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장면에서 발화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 행위와 결합되어 있어, 원작 독자들은 이를 명백한 성적 침해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는 이 장면이 "他长时间注视着她的臀部。'真想把它移到我的舌头上'(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이걸 내 혀로 옮겨왔으면 좋겠어')"로 처리되어, 발화 내용과 실제 행위 간의 논리적 연계가 단절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독자들이 서평에서 지적했듯이 "남성 가해자에 대한 묘사가 충분히 강렬하지 않아", "특별히 침해당한 것도 아닌 기묘한 상황 속에서" 영혜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다소 "뜬금없다"라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번역상의 어휘 삭제와 장면 완화는 단순히 표현 수위 조절을 넘어 독자의 인물 이해와 작품 해석의 핵심 맥락을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www.kci.go.kr

5. 결론

본 연구는 한강 『채식주의자』 중역본의 문학번역 기능 수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감성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한국 독자의 원작 서평과 중국 독자의 중역본 서평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독자의 작품 해석과 반응 양상을 규명하고 실제 번역 예문 분석을 통해 번역이 수용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감성분석 결과, 긍정 감정 군집에서는 양국 독자가 유사한 정서를 보였으나, 부정 감정 군집에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했다. 한국 독자는 작품을 '어렵고', '무겁다'고 평가하면서도 상징성과 서술 방식에 내재된 문학적 층위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국 독자들은 작품의 문학성을 '공허함' 또는 '얕다'로 인식하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가 많았다. 이는 번역본이 목표어권 독자가 기대하는 문체 미학에 부합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번역이 원문의 '문체의 등가성'을 완전히 구현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즉 후쟈오통의 번역본은 서사 전달력은 유지했으나 언어 전환 과정에서 문학적 예술성과 감각적 표현 일부 손실된 것으로 평가된다.

토픽 모델링 결과, 양국 독자 모두 작품을 여성의 정체성, 사회적 억압, 내면적 고통이라는 주제 의식으로 해석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독자는 존재론적·심리적 차원에 주안점을 둔 반면, 중국 독자는 페미니즘과 동아시아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중국 독자들은 작품을 '동아시아 여성 억압'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여성의 자해적 저항 방식을 비판하면서도 사회 구조의 억압성을 직시하려는 양가적 수용 태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학적 취향의 차이를 넘어 사회문화적 이데올로기와 번역 과정에서의 완화·삭제 등 서사적 조정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중역본 문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언어', '상징', '논리구조'를 둘러싸고 두드러지게 드러났으며, 실제 예문 분석 결과 번역가의 이른바 '정확한' 번역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 구조적 차이와 문학적 수용 기대 차이로 인해 작품의 감정 해석과 인물 평가를 선제적으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즉 원작이 지닌 미학적 모호성과 독자 참여적 해석의 가능성이 약화되었다.

www.kci.go.kr

『채식주의자』 사례는 문학번역에서 문체 재현이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닌 목표어권 독자의 문화적 기대와 독서 관습에 깊이 연동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체의 '완전한 번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번역가는 목표문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문체 효과를 '재구성'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특히 문체의 운율과 감각적 재현을 문학성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 독자의 경우, 수용 확대를 위해 그 '기대지평'에 부합하는 참신한 번역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NLP 기법을 활용하여 양국 독자의 방대한 서평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문체의 번역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고, 향후 후쟈오퉁 중역본과 중국어 원작 문학작품 참조 코퍼스 간 비교분석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의 깊이를 더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한강. (2007). 채식주의자. 창비.

胡椒筒. (역). (2021). 素食者[The Vegetarian]. 四川文艺出版社.

<2차 자료>

강경이. (2016). 한국번역문학에 대한 중국 현지 독자들의 반응 연구. 번역학연구, 17(5), 7-31.

김순미. (2012).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비평. 번역학연구, 13(2), 7-40.

박혜주, 여건종, 이상원, 최미경. (2007). 문학번역 평가 시스템 연구. 한국문학번역원.

부용. (2024). 채식주의자의 두 중역본(中譯本) 번역 비교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84, 55-86.

송은정. (2024). 기계번역과 관련된 국내 연구의 주제 탐색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교양교육연구, 18(1), 151-163.

www.kci.go.kr

신지선, 조혜진. (2018). 번역서에 대한 한국과 영미권 독자의 서평 비교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43, 105-129.

양연희, 권영주, 이상철. (2019). 토픽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 연구경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23(3), 427-450.

윤혜경, 김철민, 최승배, 김태영. (2023). 기계 번역과 자연어처리를 활용한 튜터링 활동 분석. 한국자료분석학회, 25(1), 405-416.

지윤주. (2022). 감성 코퍼스를 활용한 『Interpreter of Maladies』 번역문의 픽션적 전환(Fictional turn) 연구. *T&I REVIEW, 12*(1), 143-168.

홍유림. (2020). 셰익스피어 Othello 등장인물 대사에 나타난 감성 분석. 영어영문학, 25(3), 163-185.

Baker, M. (2000). Towards a methodology for investigating the style of a literary translator. *Target, 12*(2), 241-266.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Čermáková, A. (2018).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Some insights from corpus stylistics. *llha do Desterro, 71*(1), 117-132.

Hermans, T. (1996). The translator's voice in translated narrative. *Target, 8*(1), 23-48.

House, J. (1981).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2nd ed). Tübingen: Gunter Narr.

Iser, W. (1987).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4th e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Jauss, H. R. (1982). *Toward an aesthetic of reception* (T. Bahti, Trans.; P. de Man, Intro).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Leech, G. N., & Short, M. H. (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2nd ed., pp. 95-280). Longman.

Literary Devices. (2013). *Style*. Retrieved from https://literarydevices.net/style/

Lv, L., & Ning, P. (2013). EST translation guided by reception theory. *Open Journal of Modern Linguistics, 3*(2), 114-118.

May, R. (1994). *The translator in the text: On reading Russian literature in*

www.kci.go.kr

English.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Nalisnick, E. T., & Baird, H. S. (2013). Extracting sentiment networks from Shakespeare's plays. *In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ocument Analysis and Recognition(ICDAR)* (pp. 758-762).

Newmark, P. (1988). *A textbook of translation*. Prentice Hall.

Pang, B., Lee, L., & Vaithyanathan, S. (2002). Thumbs up? Sentiment class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Proceedings of the 2002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EMNLP)* (pp. 79-86).

Saldanha, G. (2021). The Translator: Literary or performance artist? *Translation & Interpreting Studies, 16*(1), 61-79.

Turney, P. D. (2002). Thumbs up or thumbs down? Semantic orientation applied to unsupervised classification of reviews. *In Proceedings of the 40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ACL)* (pp. 417-424).

www.kci.go.kr

Translating literary style: An NLP-based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Chinese reader responses to *The Vegetarian*

Sun Baek (emmakim1984@gmail.com)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u Jiaotong's Chinese translation of Han Kang's "Chaesikjuuija" (*The Vegetarian*) by comparing Korean readers' responses to the source text with Chinese readers' responses to the translation, employing sentiment analysis and topic modeling. It explores cross-cultural interpretations and responses and assesses the reception of the translation through detailed analyses of selected examples. The sentiment analysis revealed relatively similar positive respons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readers;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in negative feedback emerged. This findings suggest that, although Hu's translation is "accurate" in conveying information, it does not fully resonate with target-language readers in terms of stylistic nuance, resulting in a partial loss of the source text's literary qualities and sensory expression. The topic modeling and close textual analyses further reveal that the Chinese readers critically evaluated the translation with regard to "language," "symbolism," "logical structure," and "reductive translation." The translator's literal approach, shaped by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predetermined emotional interpretations and character evaluations, thereby diminishing the source work's aesthetic ambiguity and participatory interpretive potential. This case illustrates that the recreation of literary style in translation extends beyond mere linguistic transfer; it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cultural expectations, reading practices, and interpretive norms of the target audi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enhancing the reception of Korean literature in China requires translations that creatively align with the "horizons of expectation" of the target readership.

Keywords: literary style translation; reader response; *The Vegetarian*; sentiment analysis; topic modeling
키워드: 문체 번역, 서평, 채식주의자, 감성분석, 토픽 모델링

www.kci.go.kr

백선(https://orcid.org/0009-0001-0539-872X)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수료생
emmakim1984@gmail.com

논문 투고일: 2025년 8월 15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1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9월 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9월 15일

www.kci.go.kr